暴雨간뒤…

되찾은 日曜日과 잃어버린 日曜日

태풍「폴리」호는 嶺南지방에 흐트러진 상처를 남기고 갔다. 그러나「폴리」호가 수반해왔던 호우는 湖南지방의 가뭄을 씻어갔다. 상처를 입은 영남지방에는 5억의 재산피해와 수십명의 인명피해에 새겨 정을 안겨주었고 해갈을 얻은 호남지방에는 비록 일부지방에 피해를 주었으나 식수의 걱정을 풀어주는가하면 급수작전에 잃었던 휴일을 되찾았고, 영남지방에선 수해의 상처때문에 휴일을 잃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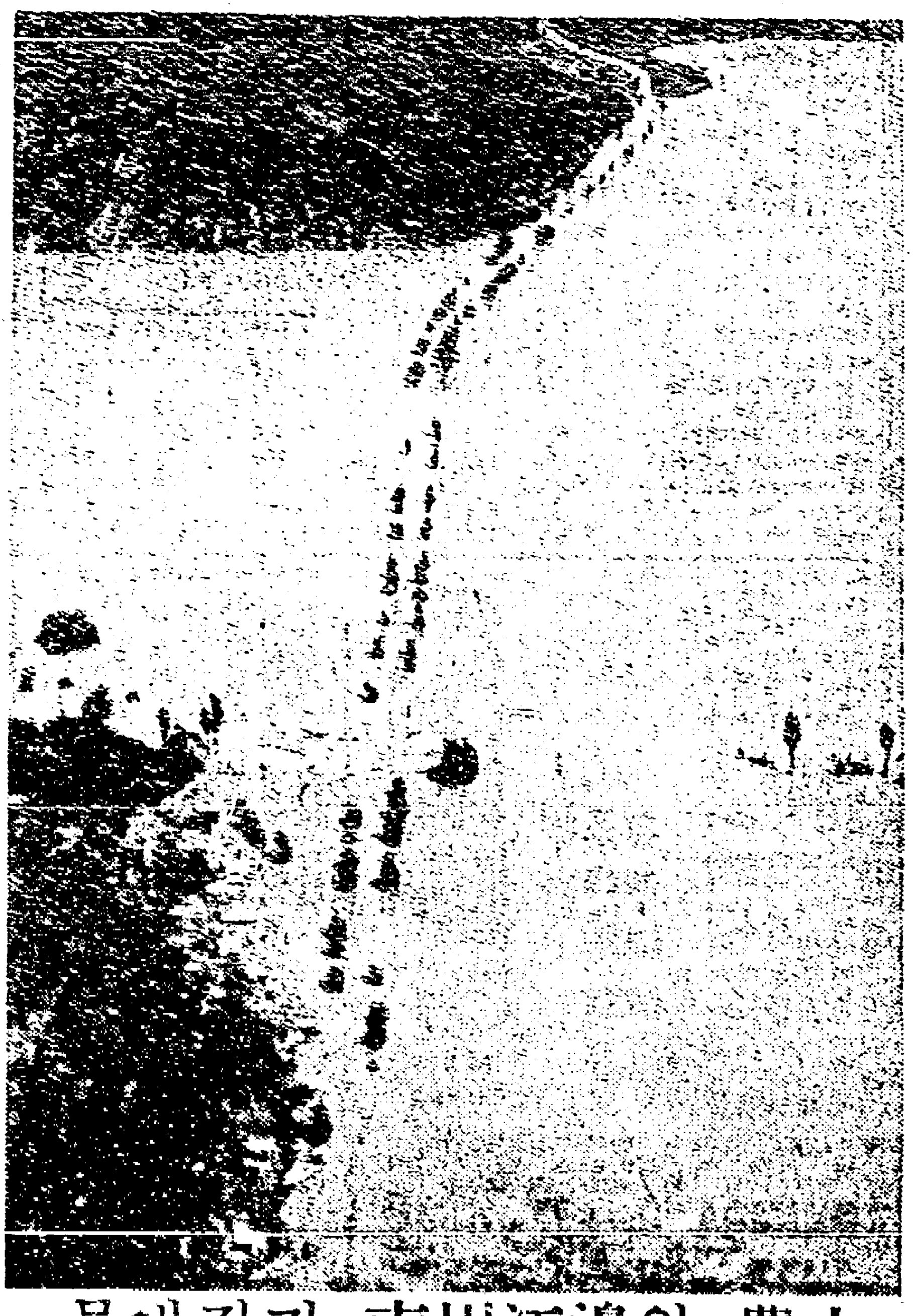
榮山江에 물흐르고…

湖肥가동 生氣돋운거리…沐浴湯도門열어

【木浦】15일부터 쏟아진비로 榮山江상수도취수장이 가동하게되자 17일부터 木浦시는 4일제의제급수를 완전해제하고 그동안 하루 3천「톤」씩 급수하던것을 1만2천「톤」씩 정상급수하게됐다. 榮山江수위는 17일현재 평상수위 5「미터」보다 1「미터」높아 6「미터」. 그동안의 식수난에 한몫을 장사는 목욕탕과 양철통장수. 木浦시민은 7월26일부터 비상급수열차 19량이 湖里·大田에서 운반해온 식수 70「톤」과 湖州시민들이 가야호, 한성호등 여객선편으로 매일 17「톤」씩 2번 47「톤」, 鎭海해군함정의 2백60「톤」, 釜山시민이보낸 8「톤」등에 크게의존했었다. 8월1일부터 일제히문을닫았던 시내40여개소의목욕탕도 이제는「파이프」를손질하면서 개업준비에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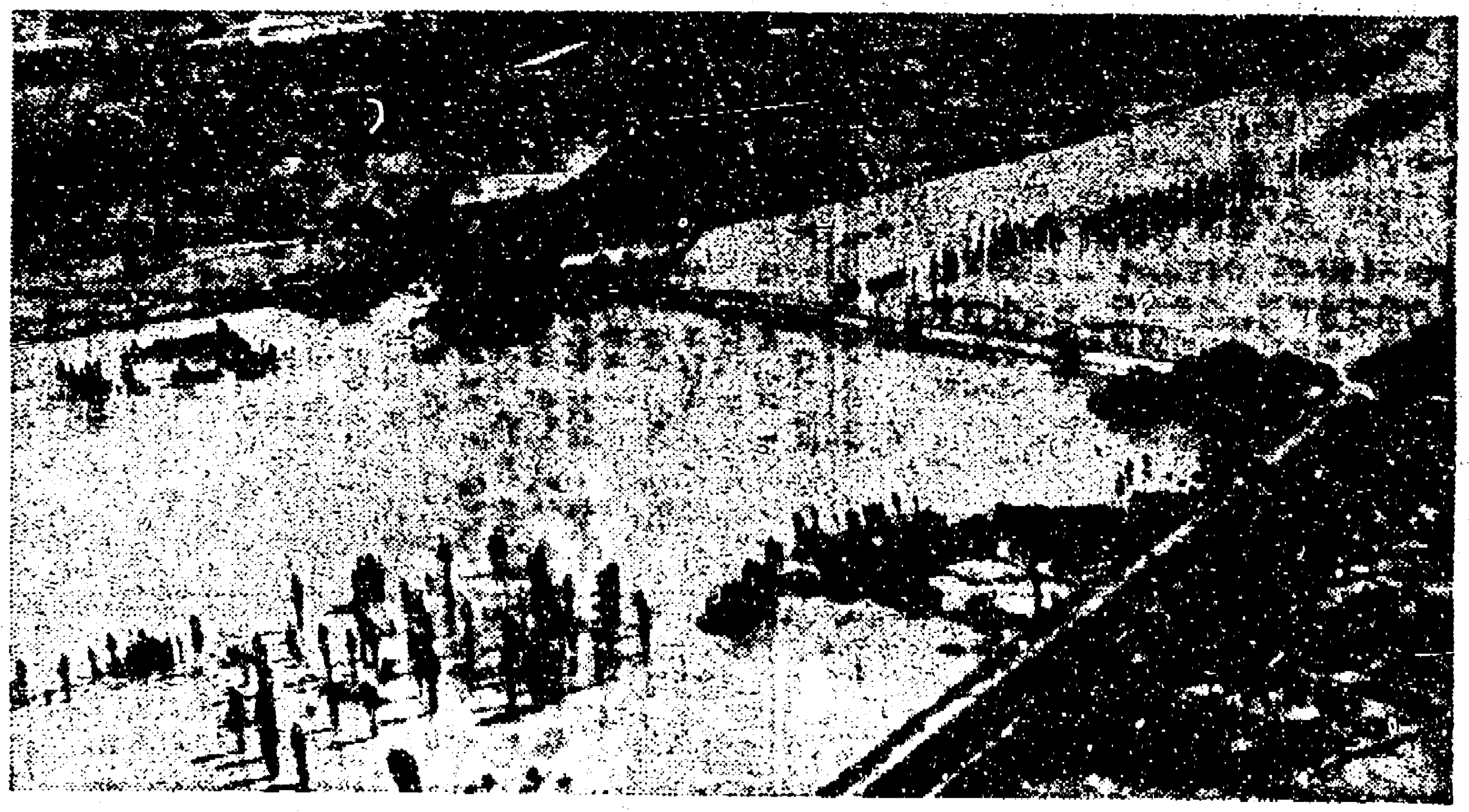
光州一部는 아직食水不足

【光州】그동안 극심한 식수난을 겪던 鶴水 南區 和順 鶴光 鄕州 發岩등지는 이번비에 완전히 해갈됐으나 光州 豐岩등지는 약간의 도움이 되었을뿐 光州 시내우물은 대부분 해갈됐으나 저지대의 상수도가 3일 전일제급수가 가능한뿐 고지대인 月山 東明 2구 白雲 산수 芝山 山水 西洞등지는 아직 급수차가 물을 실어나르는 형편이다. 10일이내에 비가내리지 않으면 식수난은 여전할것이라한다. 한편 麗水지방은 이번비로 공업용수난에 허덕이던 4개 제빙공장이 다시가동, 어선급수난이 해결됐으나 한동이 10원, 1「드럼」에 1백원씩 받던 물장수들이 대량실직(?)하기도했다. 靈岩지구 三湖面은 한해가 극심하던 여전히 식수난, 급수차 5대가계속 식수공급을 하고있다.



물에잠긴 南川江邊의 農土

颱風「폴리」號로 범람한 南川江변의 慶南密陽郡下南面守山里【本社HL1026세스나機上에서金海雙記者찍음·呂奉吉操縱】【畫報5面】



◇범람한 洛東江上流 颱風폴리號로 慶南의령군남지면 남지교一帶가 범람되었다. 【本社1026세스나機上에서 金海雙記者찍음·呂奉吉操縱】

被害13億·死亡失踪32

폴리號에 할퀸 嶺南의 아픈 傷處

중앙수해대책본부 집계에 의하면 18일0시현재 전국의 피해총액은 13억1천8백25만원으로 늘어났고 인명피해는 사망19명, 실종13명, 부상26명 도합58명이며 이재민은 1만6천53명이다. 또한 논(畓) 4백16정보, 밭(田) 4백57정보가유실되는[illegible] 대책본부에 의하면 피해는 경북이 가장심하고 다음이경남, 전남의 순서로 되어있다.

釜山 태풍「폴리」호는 釜山과 慶南지방에 23명의인명피해와 4억3천28만여원의 각종재산피해및 5천7백90명의 이재민을 냈다. 이날하오3시40분께 부산 영5333호「코로나」운전사 黃영식씨(35)는 凡一洞신호대앞에서 넘어진고압선에감전 즉사했으며 하오4시께는 釜山影島앞 바다에서 黃자수씨(47·影島區太平洞2街16) 장녀 강숙양(14)과 4녀강선양(10) 등 자매가 물결로흘러나갔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한편 16일하오 경계수위를 넘어 위험수위에 육박했던 洛東江수위는 비가그친 17일하오부터 점차 내려가기시작했다. 본사가조사한 釜山및慶南지방의 수해피해는 다음과 같다.

▲인명피해=사망12명, 실종3명, 부상8명 ▲이재민=5천7백90명 ▲건물피해=유실50동, 전파36동, 반파53동, 침수1천8백16동, 건물피해 86만2천원 ▲船舶피해=파손2척, 침수7척, 유실7척 ▲田畓피해=유실3천2백평, 매몰4백20평, 침수9천3백35정보 ▲제방=2개소(50미터) ▲가로수=19본 ▲도로유실및파괴=1백23개소(4천2백45미터) ▲축대=8개소(69미터) ▲上下水道=1개소(5백5미터) ▲교량유실및파손=41개소 ◇경찰조사총피해액=4억3천28만3천3백원

大邱 慶北도내에선 23명의 인명피해와 농경지, 전답, 선박, 공공시설등 3억4천6백38만6천원(17일정오현재)의 재산피해와 이재민 [illegible]

被疑者를致死

自白않는다고 巡警을拘束

【水原】서울지검水原지청李東淑검사는 17일 龍仁경찰서 金元淳순경(30)을 상해치사혐의로 구속했다. 金순경은 지난16일밤11시 龍仁郡蒲谷面 李재익씨 돈3백20원을 훔친혐의로 경찰서에연행, 혐의사실을 자백치않는다고 곤봉으로 뒷통수를때려 숨지게한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

滿醉버스에轢死

새벽新聞配達하던少年

◇죽은金正九군

17일새벽5시께 서울永登浦區新吉洞187앞길에서 술에 만취된 정비공 李永夏씨(31·永登浦區九老洞간이주택231)가 운전하던 공로관광소속 서울영25738호좌석「버스」가 과속으로 달리다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침신문배달을 나가던 金正九군(21·永登浦區[illegible]2)을 치어죽였다. 사고뒤 李씨는 차를 도망쳤다가 승객 許[illegible]씨(33·永登浦區[illegible]105)와 李[illegible]군(21·永[illegible]45)의 고발로 붙잡혔다. [illegible]

機關·團體用紙수거

怪벽보·편지事件

수원지로 뿌려있는 편지지 [illegible] 17일부터 [illegible] 기관등에서 쓰는 [illegible]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illegible] 자세양식의 용지수거에 나섰다. 경찰은 현박장의 것과 같은 편지지가 시중문방구점에서 나오지않자 이런 용지는 별도의 특수한 조직이 따로있다고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추리한것이다.

市警厚生食堂팔아

城東區厚生課長立件

17일밤 서울城東경찰서는 城東구청사회과장 權[illegible]씨(56)를 업무상배임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權씨는 지난12월7일께 城東區[illegible] 시비(市費)로지은 영세민용후생식당을 [illegible]씨(55)에게 지난해11월께 60만원에 팔아먹은 혐의를 받고있다.

變心愛人에칼부림

陸軍一兵, 自身목도 찔러重態

18일 영시20분께 서울城北區[illegible] 육군모부대소속 金末出1병이 모다방「레지」인 애인 李英淑양(22)을「카빈」대검으로 목과 어깨등을 찌르고 자신도 목을찔러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중이나 두사람다 중태다. 金1병과 李양은 지난 6월부터 동거생활을 하다가 金1병이 지난해 12월입대하자 李양의 마음이변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陸軍調達次監 職位解除조치

軍服原毛橫流사건

육군은 17일 三興모직의 군복원모횡류사건에 관련, 조달감실大邱분실장 李鍾福대령(당시 조달차감)을 우선 직위해제하고 형사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李대령은 횡류사실을 알고도하[illegible] 범적조치를 취하지않았었다.

한편 헌병감실은 당시의 조달감실파견 생산감독관 趙世衡해병중령과 具滋根공군중령을 각군수사당국에 송, 계속 수사키로했다.

홍콩毒感은A3型

【東京=鄭淵淳特派員】「홍콩」을 중심으로 현재「아시아」에서 유행하고있는 감기는 A3형으로 부르게될 것이라고 日本國立豫防衛生研究所의「후꾸미」(福見秀雄)박사가 지난16일밝혔다.

激浪겪고九死一生

颱風과 싸워이긴船員「트리오」

바위잡고 버티기 3時間…「살았다」소리지르고 失神

선데이 스토리

【釜山】[illegible](5분)의 선원 [illegible](41)씨 [illegible]

○○○ 밤바다의 파도를헤쳐 버티기3시간. 태풍「폴리」가 몰고온 풍속40「킬로」의 강풍과 파고5「미터」의 격랑속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은 삶에의 강한 집념을 버리지 않았다. 바람이가고 파도가잦을때 그들은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illegible]「살았다」는 안도감과함께 정신을잃었다. ○○○

崔相和(23)씨등 3명의 구사일생을 보고「신이도왔다」고 [illegible] 그러나 정신이 깨어난후 그들은 3시간을 [illegible] 인간의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고있다. [illegible]

이었다. 파도가 점차 높아지고 바다가 거세어지자 이들은 [illegible] 배를 한쪽으로 기울게 세웠다. 그러면서 파도에 밀려 [illegible] 저인망 어선이 미칠듯 배는 침몰 직전에 놓였다. 배에 자신있던 鄭씨(25)와 金[illegible]씨(25)는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金선장등 3명은 「뱃사람이 배와운명을 같이해야한다」는 고집과 위낮은 파도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배에 남아있었다.

배는 곧 침몰 한쪽을 [illegible] 하면서 1시간을 견뎠다. 배가 거의 물에 잠길무렵 3명은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떠나기로했다.

바위를 더듬어 파도가 다시 밀려왔다. 그러고는 배를 [illegible] 金선장과 鄭씨는 [illegible] 파도속에 허우적거리며 金선장이 간신히 바위에 붙었다. 그로부터 5분후 사방을 정신을 차리고 대답하게 [illegible] 두선원은 파도에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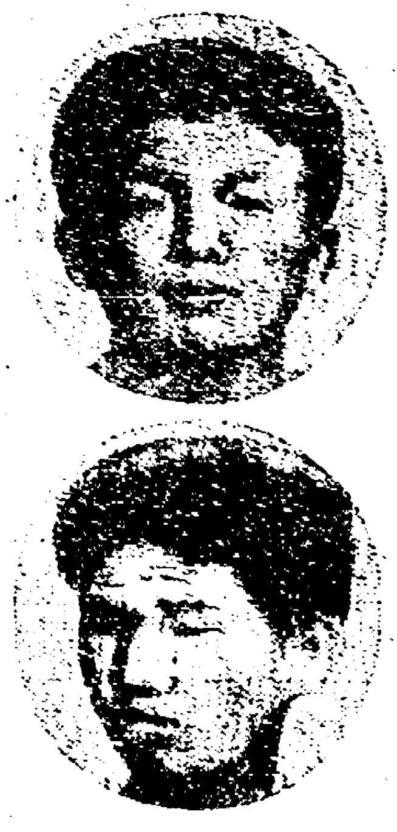
어있었다. 金선장은「정신차려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미 파도에 무선원은 먹기다시피 했다 [illegible] 오는 金선장의 [illegible] 바다 [illegible] 정신을 [illegible]

미같은 파도는 계속 그들의 몸을 때렸다. 바위에 겨우안은 [illegible] 1시간이 지나자 손에 [illegible] 이빠지고 떨리기 시작했다. 鄭씨는 [illegible] 사람 [illegible]

[illegible] 날씨가 [illegible] 그들은 파도에 [illegible]

「살았다」는 3명은 밤바다를 안고 파도와 싸웠다 [illegible] 鄭씨는 金선장에게 [illegible] 정신이 [illegible] 고 金선장은 17일 [illegible]

鄭씨는 배를 [illegible] 아버지가 [illegible] 다고 감격하면서 묘소를 찾아가 뵈겠다고했다. 【釜山】



◇3시간동안을 파도와싸운, 의지로 九死一生을 얻은 崔相和씨㊤·鄭明元씨㊦

良淑양엄마품으로

日法務省, 特別滯留허가

【東京16日發】東京주일공사는 16일 일본법무성으로「나까가와」출입국관리국장을 방문, 金良淑양(13)의 일본체류문제를 다시 구체적으로 인도적으로 해결해줄것을 요청했다. 법무성당국은 金양의 정상을 참작하여 특별체류를 허가하기로했다. 따라서「후꾸오까」출입국관리수용소에 수용되어있는 金양은 21일께 엄마품으로 돌아가게될것같다.

貨車5輛脫線

機關車故障으로

【慶北】17일하오7시55분께 江原道三陟郡長省邑白山里 黃池역 구내에서 黃池발 鐵岩행 1864호 화물열차(기관사 金병해·46)가 급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브레이크」고장을 일으켜「디젤」기관차와 화차 5량이 탈선, 약3「미터」언덕밑으로 굴러떨어졌다.

軍援物資빼내

海兵등7名拘束

【鎭海】17일 해군鎭海헌병대는 이곳해병보급단에 지난68년도 하반기 군원물자인 미제「바이스」、공구류등 수십종(시가5백만원)을 부정유출, 매각한 해병보급정비단 金山분창소속 金昌圭중사, 陳모문상병등과 육군釜山병기창 金모문관과 민간인등7명을 공동혐의로 구속했다.

對印尼戰서 敗北

韓國4對2로 決勝진출絶望

메르데카蹴球

【쿠알라룸푸르17日=朴洪緖特派員】17일저녁 이곳에서 거행된「메르데카」컵쟁탈「아시아」축구대회 A조예선「리그」에서 한국은 강적「인도네시아」에 4-2로 패배, 2승2패를 기록 결승진출의 전망이 [illegible]

僞幣犯1名拘束

서울西大門경찰서는 17일 尹東鉉씨(67·城東區[illegible])를 [illegible]

金然翔青龍部隊長歸國

20個月만에…우리海兵잘싸워

◇20개월만에 개선한 金然翔准將

월남에서 청룡부대장 金然翔준장이 17일 20개월의복무를 마치고 귀국했다. 이날 공항에는 李海[illegible]총무처장관과 해병대사령관등 [illegible]

前參議院副議長 蘇宣奎씨別世

◇故蘇宣奎씨

前참의원부의장 蘇宣奎씨가 17일[illegible]

뉴요크의우리船員 月末께航空便귀국

旱害民義捐金2千萬원

全經聯서丁總理에傳達

全國經濟人聯合會 부회장 [illegible]씨㊧는 17일 中央廳으로 丁一權國務總理를만나 全經聯會員이 모금한 旱害義捐金을 전달했다.

긴급災害救護費 2億放出

순곡 양조 정선된 원료
닭표간장
주문전화 ㉘7310 ㉘2758

트리달을 紹介하면서!!

胃腸病으로 苦生하시는 여러분께드리는말씀!

우리會社는 美國에서 胃腸病을 고치는 藥만 專門으로 만드는 오랜 歷史를 가진 레이크·사이드 會社로서 美國은 勿論 이미 欧羅巴를 爲始하여 南美와 日本等 여러나라에 特許胃腸藥 트리달을 紹介하여 좋은 評價를 받고 있읍니다.

이번 韓國에 있는 國際藥品의 要請에 依하여 正式으로 技術提携를 맺고 우리 會社의 指導下에 美國에서 生産하는 트리달과 꼭같은 品質과 꼭같은 商標로 韓國에 紹介하게된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生覺합니다.

이 트리달은 어떠한 症狀으로 나타나는 胃痛·腹痛이라도 우선 그 痛症을 멈추고 속을 편안히 하는 同時에 그病의 原因까지 治療하는 鎭痛과 治療를 겸한 新藥으로서 韓國에는 처음 紹介되는것이며 藥効는 레이크·사이드社가 絶對保證합니다.

이제 全國에 있는 病院과 藥局을 通하여 胃腸病으로 오래 苦生하시는 여러분께 이 트리달이 投與되게된것을 매우 多幸하게 생각합니다.

●이 藥의 藥効를 確証하기 爲하여 先着順 五千名分 限度로 試供品을 無料로 드리고저 하오니 新聞에 揭載된 交換券과 住所를적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症狀에 한두번만 試用하시면 곧 그 藥効를 아시게됩니다. 〈國際私書函〉一六六○號

適應症 胃腸炎·神經性消化不良·上下腹痛 胃궤양·胃十二指腸궤양·까스膨滿 胃경련·胃酸過多症·急滯

美國레이크·사이드製藥會社
國際藥品工業株式會社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값 12錠 한병에 300원